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2, pp. 37-46,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037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에 대한 조사연구

전소원[1], 박혜영[2*]
[1]고신대학교 음악치료전공 박사과정, [2]고신대학교 음악치료전공 조교수

A Survey on the Use of Music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So-Won Jeon[1], Hye-Young Park[2*]
[1]Doctoral Student, Music Therapy, Kosin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Music Therapy, Kosin University

요 약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현황과 목적, 전반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전국 5개시에 거주하는 57-66세 연구 참여자 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는 휴식을 취할 때 혼자서 휴대폰으로 주로 대중음악을 감상하였으며, 음악활용의 목적은 행복, 취미, 자신감과 성취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는 음악활용 시 동호회의 형태로 노래 부르기 및 가사토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음악활용 목적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봉사활동에 대한 목적을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에 적합한 음악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 세대, 음악활용 현황, 음악활용 목적, 음악활용에 관한 요구, 조사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examine the trend, purpose, and overall needs on the use of music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On 87 participants aged from 57 to 66 living in five cities of Korea, online and offline surveys were conducted. As a result, first, the baby boomer generation mostly listened to popular music on their mobile phones when taking a rest alone,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urpose of music use was for happiness, hobby, confidence, and fulfillment in order. Second, there was shown that the baby boomer generation hope to do singing and lyric-discussion in a club setting. Third, for the purpose of music use according to genders, there was found that female participants more significantly focused on volunteering than male.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music program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Key Words : Baby Boomer Generation, Trend of Music Use, Purpose of Music Use, Needs of Music Use, Survey

1.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평균수명이 상승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에 전체인구의 14.9%를 차지했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45년에는 37%로 일본(36.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1]. 이와 같이 급속한 노령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노인이 취약한 소수계층이 아닌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요 계층으로 대두되고 있기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Park(legendphy@kosin.ac.kr)
Received October 6, 2020 Revised October 23,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때문이다[2].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기존의 실버 세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실버 세대가 뉴 실버 세대이다.

뉴 실버 세대는 안정적인 경제력과 소비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소비경험을 지닌 합리적 소비자로 이전 세대들과 달리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고 재테크에도 적극적이다. 노후 준비를 독립적으로 이끌어가며 취미활동과 경제관념도 기존 실버세대보다 합리적이며 자신의 연령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연소화 성향을 지니며[3],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전후세대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뉴 실버 문화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s) 세대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 집단을 지칭하며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가구주 연령기준으로 전체가구의 21.8%에 달하는 집단이다[4]. 국가마다 연령별 인구구성에서 출산율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라 일컫기도 한다[5].

베이비부머 세대는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교육·결혼을 시키는 '낀 세대'로 불리기도 하고 소비지출 중 부모생활비와 자녀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자신을 위한 투자와 노후 준비는 부족한 세대이기도 하다[6]. 1962년부터 시작된 국가 경제개발 과정의 혜택을 받아 고학력 시대의 시발점이 된 세대이나, 개인적 행복보다는 가족이나 사회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세대로 간주되고 있다[7]. 이들은 민주화 운동등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입시경쟁과 실업문제, 주택문제 등 어려움을 겪은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IMF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조기은퇴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세대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뉴 실버 세대의 연령층이 두터워지고 노인세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8].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노년기를 자아실현의 기회 또는 제 3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9].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여성들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원한다[10]. 실제로 이들은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데, 이는 봉사대상을 위해 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과 보람에 대한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 주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노년기에는 은퇴등 사회적 역할들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거나 죽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년기 이전에 유대감을 맺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9]. 여가활동 및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노년기의 불안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12].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적령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은퇴 후 '발전적 적응'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 이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42.3%가 노후를 '취미 생활'을 누리며 보내길 원하고 있어 은퇴 후 여가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14].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의 행복한 삶은 은퇴 후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여가시간의 조화가 실현될 때이며,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노년기의 적응과 심리적 웰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15]. 특히, 여가활동 가운데 음악은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6].

음악활동은 노인의 기능을 유지 및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음악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억력, 집중력,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지 기능과 성취감, 스트레스해소, 우울 감소, 긍정적인 기분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7]. 고령사회가 될수록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로 여성노인은 배우자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는 등의 이유로 여성 노인의 삶의 질은 더 저하될 수 있다[18]. 여성 노인에게 음악활용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를 완화하고 사회·심리· 인지적 수행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19].

노인의 음악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건강 노화를 위한 음악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 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 프로그램의 노래 교실이나 합창과 같은 가창활동이 많았고 민요나 대중가요를 선호하며 국외에서는 클래식이나 명상음악 감상이 주를 이루었다[20]. 노인 대상 악기연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업준비와 연주가 비교적 쉬우며 악기구입에 있어서도 경제적 부담이 적은 우쿨렐레, 오카리나, 하모니카와 같은 단순악기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21]. 또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중 노래교실은 가요 부르기, 기악은 몇 개의 서양 클래식 악기와 대중악기를 개인레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악은 판소리와 민

요 부르기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22].

노인들의 음악적 선호도 조사에서는 실기 중심의 수업과 가요프로그램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뿐만 아니라 음악적 선호도에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뉴 실버세대는 고전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노인들이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과는[23],[24] 다른 양상이다. 음악장르별 조사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노인일수록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5]. 또한 노인 대상 음악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력 차이에 따라 흥미위주의 강의와 교양강좌의 선호 수준이 달라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와 같이 노인 대상 음악활용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 되고 있지만, 은퇴와 더불어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효율적인 음악활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뉴 실버세대의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8]에서는, 뉴 실버 세대의 음악선호도와 노인의 음악교육 현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타 영역과 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뉴 실버세대의 연령대를 1945년 전후 출생한 집단으로 규정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높은 연령대인 기존 노인 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27]. 이에 본 연구는 현역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연령이 포함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활용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향후 뉴 실버 세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음악활용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현황 및 목적은 어떠한가?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에 관한 이들의 요구는 어떠한가?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별에 따른 음악활용 목적 및 요구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5개시에 거주하는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중반의 남녀 120명이다. 연구자가 직접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에 대한 협조를 얻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설문지 70부, 대면 설문지 50부를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여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지 첫 장에 연구 목적과 수집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안내하고 정보 동의를 표기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95부가 회수되었는데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답이 3문항 이상인 참여자의 설문 자료를 제외한 87부(온라인 45부, 대면 설문지 42부)를 분석하였고, 설문지의 회수율은 79.1%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총 87명(남 53명, 여 34명)으로, 연령대는 57세-66세이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는 80명(91%), 무직은 7명(9%)인 것으로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음악적 배경은 전체 응답자 중 46명(52.9%)이 별도의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6개월 미만(21.8 %)과 3년 이상(13.8%) 참여했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관은 동호회(14.8%)와 개인교습(12.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7)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53(60.9)
	Female	34(39.1)
Age(years)	55-66	87(100)
Job	Have	80(91)
	None	7(8)
Music education[a]	**Less than 6 months**	**19(21.8)**
	6 months-1 year	3(3.4)
	1-3 years	7(8.0)
	More than 3 yerars	12(13.8)
	None	46(52.9)
Participating Institution[b]	Welfare Center	1(1.1)
	Cultural Center	8(9.4)
	Private Lesson	11(12.6)
	Club	**13(14.8)**
	Not applicable	54(62.1)

Note. [a] refers to the experience of receiving music education other than the regular curriculum. [b] is the analysis data for those who have experience in music background.

2.2 측정도구

이 연구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5문항, 음악활용 현황에 관한 15문항, 음악활용 목적에 관한 7문항, 음악활용에 관한 요구 6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음악활용 현황에 관한 문항은 Yang과 Park[25]이 설문조사한 7개 변인(활동, 빈도, 장소, 사람, 장르, 분위기 등)을 사용하였다. 둘째, 음악 활용 목적에 대한 문항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North와 Hargreaves, 그리고 Hargreaves의 연구를 수정하여 구성하였다[26]. 셋째, 음악활용에 관한 요구는 Chang의 뉴 실버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8]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음악치료전공 교수 2인과 음악치료전문가 1인에게 설문 내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 설문내용이 참여자가 이해하기 쉬운지, 항목별 주제와 설문내용이 적합한지, 질문하는 방법이 객관적인지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악활용 현황, 음악활용에 대한 요구는 빈도 분석을 하였고 음악활용의 목적은 항목별 평정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음악활용의 목적은 독립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성별에 따른 음악활용에 대한 요구는 카이제곱검정으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3. 결과

3.1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3.1.1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현황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현황은 Table 2와 같이 확인되었다. 음악사용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39.1%), 음악은 휴식을 취할 때(51.7%), 혼자서(77.0) 사용하였고, 기분상태와 상관없이(50.6%), 일상적으로 음악을 듣고 선호하는 음악활동은 음악 감상(6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감상 매체는 휴대폰(70.1%), 선호하는 음악 감상 장르는 대중음악(트로트, 포크 송, 가요, 팝송 등 75.9%), 감상하는 음악 분위기는 빠르고 경쾌한 음악(40.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노래의 장르는 발라드(40.2%), 트로트(34.5%)로 나타났고, 노래의 선곡 이유는 리듬과 멜로디(49.4%), 노래 가사(39.1%), 선호하는 노래 가사의 내용은 추억(35.6%), 사랑(26.4%)의 비율이 높았다. 연주 가능한 악기는 피아노(18.4%), 기타(16.1%)였으며, 배우고 싶은 악기는 기타(34.5%), 피아노 (24.1%)로 조사되었다.

3.1.2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목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목적은 Table 3과 같이 행복(3.35±1.260), 취미(2.89±1.273), 자신감 및 성취감(2.53±1.250)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실버강사(1.42±.905), 친구(1.80±.949), 봉사활동(1.99±1.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3.1.3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에 관한 요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는 Table 4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수강기간 2년 이상(45.9%), 참여 비용 월 3만원에서 5만원 이하(36.8%), 동호회(24.1%),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31.0%), 강사의 자격요건은 상관없음(50.6%), 4년제 대학 졸업이상 전공자(37.9%), 희망 프로그램은 노래 부르기 및 가사토의(26.4%), 악기연주 및 음악회(24.1%), 다른 교양 강좌와 차이점은 함께 즐길 수 있다(26.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1.4 성별에 따른 음악활용 목적 및 요구 차이

성별에 따른 음악활용 목적의 차이는 Table 5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나, 봉사활동에 대한 항목에서 여성(2.29±1.175)이 남성(1.78±0.923)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p<.05). 또한 음악활용 요구에 관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기간, 참여비용, 기관, 희망 프로그램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관 선택 이유에서는 남성은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26.0%), 친구가 있어서(22.0%)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성은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41.2%), 거리가 가까워서(26.5%)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4.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현황과 목적, 그리고 음악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에 관하여 조

Table 2. Current State of Participants' Use of Music (N=87)

Category		Variable	n(%)
Frequency(day)		Rarely listened	14(16.1)
		Less than 30 minutes	29(33.3)
		30 minutes-1 hour	**34(39.1)**
		1-2 hours	5(5.7)
		More than 2 hours	5(5.7)
When		When I woke up in the morning	4(4.6)
		At mealtime	0(0)
		when taking a rest	**45(51.7)**
		When I do other things (reading, climbing, exercising, etc.)	35(40.2)
		At bedtime	3(3.4)
Person		**By oneself**	**67(77.0)**
		With friends(2-5 persons)	18(20.7)
		More than 5 persons	2(2.3)
Mood		Being depressed	17(19.5)
		Getting angry	0(0)
		Being happy	24(27.6)
		Feeling sad	2(2.3)
		Regardless of mood	**44(50.6)**
Activity		**Listening**	**55(63.2)**
		Singing	19(21.8)
		Playing	4(4.6)
		Etc.	8(9,2)
Listening	Media	Radio	13(14.9)
		Cell phone	**61(70.1)**
		Computer	3(3.4)
		TV	5(5.7)
		Anything else	5(5.7)
	Genre	Classical	10(11.5)
		Popular music	**66(75.9)**
		Korean traditional music	1(1.1)
		Religious music	7(8.0)
		Anything else	2(2.3)
	Mood	**Fast and lively**	**35(40.2)**
		Heavy and solemn	4(4.6)
		Calm and stable	32(36.8)
		Slow and lyrical	9(10.3)
		Anything else	6(6.9)
Singing	Genre	Trot	30(34.5)
		Old pop	10(11.5)
		Folk songs	1(1.1)
		Ballade	**35(40.2)**
		Anything else	10(11.5)
	Why	Singer	4(4.6)
		Lyrics	34(39.1)
		Rhythm and Melody	**43(49.4)**
		Easy to sing	2(3.4)
		Anything else	3(3.4)
	Lyrics	Love	23(26.4)
		Hope	13(14.9)
		Memory & nostalgia	**31(35.6)**
Playing	Who	Family	3(3.4)
		Anything else	15(17.2)
	Playable instruments	**Keyboard(piano etc.)**	**16(18.4)**
		String(guitar etc.)	14(16.1)
		Korean traditional(Janggu etc.)	3(3.4)
		Wind(saxophone etc.)	2(2.3)
		Not applicable	47(54.0)
	Want to learn	**String(guitar)**	**30(34.5)**
		Keyboard(piano)	21(24.1)
		Wind(saxophone)	18(20.7)
		Korean traditional(Janggu)	3(3.5)
		Anything else	15(17.2)

Table 3. Purpose of Participants' Use of Music (N=87)

Purpose	Number of respondents, n(%)					M±SD
	1	2	3	4	5	
Hobby	18(20.7)	12(13.8)	23(26.4)	25(28.7)	7(8.0)	2.89+1.273
Friendship	42(48.3)	23(26.4)	16(18.4)	3(3.4)	1(1.1)	1.80+.949
Confidence·Achievement	21(24.1)	26(29.9)	16(18.4)	16(18.4)	6(6.9)	2.53+1.250
Happiness	**9(10.3)**	**13(14.9)**	**19(21.8)**	**27(31.0)**	**17(19.5)**	**3.35+1.260**
Senior lecturing	65(74.7)	10(11.5)	6(6.9)	2(2.3)	2(2.3)	1.42+.905
Volunteering	41(47.1)	16(18.4)	18(20.7)	8(9.20	2(2.3)	1.99+1.139
Prevention of dementia	23(26.4)	23(26.4)	19(21.8)	15(17.2)	5(5.7)	2.48+1.231

Notes. 1: high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agree, 5: strongly agree.

Table 4. Needs of Participants for Use of Music (N=87)

Category	Variable	n(%)
Duration	Less than 6 months	16(18.4)
	6 months-1 year	13(14.9)
	1-2 years	16(18.4)
	More than 2 years	**40(45.9)**
Tuition Institution Selection Reason	Less than 30,000 won a month	25(28.7)
	30,000-50,000 won a month	**32(36.8)**
	50,000-80,000 won a month	10(11.5)
	80,000-100,000 won a month	13(14.9)
	More than 100,000 won a month	5(5.7)
Institution Instructor Qualification Requirements	Cultural center, welfare center	15(17.2)
	Private academy	14(16.1)
	Club	**21(24.1)**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9(10.3)
	Anything else	11(12.6)
Institution Selection Reason	At close distance	17(19.5)
	Because I have a friend	11(12.6)
	The instructor was so kind	6(6.9)
	There's a program I want to learn	**27(31.0)**
	Anything else	23(26.4)
Instructor Qualification Requirements	Non-majors	7(8.0)
	Majors	33(37.9)
	An acquaintance	3(3.4)
	No matter	**44(50.6)**
Wishing Program	**Singing and song discussion**	**23(26.4)**
	Instrumental performances and concerts	21(24.1)
	Music theme travel	18(20.7)
	Listening to movie music	10(11.5)
	Anything else	12(13.8)
Differences from Other Courses	**Enjoying together**	**27(31.0)**
	Dementia prevention effect	15(17.2)
	Relieving stress	22(25.3)
	Feeling belonged	7(8.0)
	Anything else	12(13.8)

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활기찬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 총 8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현황은 휴식을 취할 때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리고 기분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며, 혼자서 음악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선호하는 음악활동은 음악 감상이며 휴대폰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상에서의 음악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을 가정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이 듣고 공공장소에서 배경음악처럼 음악 경험을 하며 음악을 들을 때는 주로 혼자 듣는다는 선행연구 결과[28]와 맥을 같이한다.

선호하는 음악 감상 장르는 대중음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음악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노래 교실이나 합창과 같은 가창활동이 많았고 민요나 대중가요를 선호하며 국외에서는 클래식이나 명상음악 감상이 주를 이루었다는 Lee와 Kim의 연구[19]

Table 5. Purpose of Use of Music according to Gender (N=87)

Purpose	Gender	M±SD	t	p
Hobby	m(n=51)	2.86+1.265	−.277	.783
	f(n=34)	2.94+1.301		
Friendship	m(n=51)	1.92+ .997	1.457	.149
	f(n=34)	1.62+.853		
Confidence· Achievement	m(n=51)	2.55+1.238	.176	.861
	f(n=34)	2.50+1.285		
Happiness	m(n=51)	3.33+1.160	−.175	.862
	f(n=34)	3.38+1.415		
Senior lecturing	m(n=51)	1.33+ .683	−1.128	.263
	f(n=34)	1.56+1.160		
Volunteering	m(n=51)	1.78+ .923	−2.060	.043*
	f(n=34)	2.29+1.360		
Prevention of dementia	m(n=51)	2.31+1.175	−1.560	.122
	f(n=34)	2.74+1.286		

* $p<.05$ m=male, f=female

와 차이를 보인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음악활용에 있어서 음악 감상을 선호하는 것은, 음악 감상은 따로 음악을 배우지 않아도 음악 경험을 할 수 있고 편안한 환경에서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참여가 용이한 활동이며, 특정 기분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체인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29].

음악을 감상하는 매체가 MP3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30]와 달리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매체인 휴대폰이 감상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의 시점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인구수나 스마트 폰의 기능적인 면이 본 연구 수행 시점과 차이가 있고 중소도시 거주 노인들의 스마트 폰 사용경험연구에서 60대, 70대 노인들은 스마트 폰을 기사 검색, 음악듣기, 게임, 동영상 감상, TV시청의 순으로 사용한다[31] 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노래의 장르에 있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발라드가 트로트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중들의 개인변인

Table 6. Needs for Use of Music according to Gender (N=87)

Category	Variable	M(n=50) n(%)	F(n=34) n(%)	x^2(p)
Duration	Less than 6 months	10(19.6)	6(17.6)	6.736[a] (.151)
	6 months−1 year	11(21.6)	2(5.9)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2 years.	7(13.7)	9(26.5)	
	more than 2 years	9(17.6)	10(29.4)	
	Anything else	14(27.5)	7(20.6)	
Tuition	less than 30,000 won a month	14(27.5)	11(32.4)	8.951[a] (.062)
	less than 30,000 won to 50,000 won a month	17(33.3)	15(44.1)	
	less than 50,000 won to 80,000 won a month	4(7.8)	6(17.6)	
	less than 80,000 won to 100,000 won a month	12(23.5)	1(2.9)	
	over 100,000 won a month	4(7.8)	1(2.9)	
Institution	Cultural Center, Welfare Center	7(17.1)	8(27.6)	5.589[a] (.232)
	private academy	8(19.5)	6(20.7)	
	Club	15(36.6)	6(20.7)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3(7.3)	6(20.7)	
	anything else	8(19.5)	3(10.3)	
Institution Selection Reason	At close distance	8(16.0)	9(26.5)	10.562[a] (.032*)
	Because I have a friend	11(22.0)	0(0)	
	The instructor was so kind	3(6.0)	3(8.8)	
	There's a program I want to learn	13(26.0)	14(41.2)	
	Anything else	15(30.0)	8(23.5)	
Instructor Qualification Requirements	Non−Communist	1(2.0)	3(8.8)	9.113[a] (.058)
	A two−year college graduate	1(2.0)	2(5.9)	
	A four−year college graduate or higher	14(28.0)	16(47.1)	
	An acquaintance	3(6.0)	0(0)	
	No matter	31(62.0)	13(38.2)	
Wishing Program	Singing and Gasato	14(28.0)	9(26.5)	2.096[a] (.718)
	Instrumental performances and concerts	10(20.0)	11(32.4)	
	Music Theme Travel	12(24.0)	6(17.6)	
	Listening to movie music	7(14.0)	3(8.8)	
	Anything else	7(14.0)	5(14.7)	
Differences from Other Courses	Enjoying together	18(36.7)	9(26.5)	1.612[a] (.807)
	Dementia Prevention Effect	7(14.3)	8(23.5)	
	Relieving stress	13(26.5)	9(26.5)	
	A member of society	4(8.2)	3(8.8)	
	Anything else	7(14.3)	5(14.7)	

에 따른 음악선호도 연구에서 좋아하는 음악장르는 대중가요이며 그 중 발라드를 좋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32] 와 일치한다. 한편, 배우고 싶은 악기는 노인 대상 선행 연구에서 수업준비와 연주가 쉬우며 악기구입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우쿨렐레, 하모니카, 오카리나와 같은 단순악기의 선호도가 높았으나[20]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타와 피아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실버세대와는 달리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악기를 배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비교적 적고 70년대-80년대 유행했던 통기타 음악을 학창 시절에 즐겼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피아노를 가장 배우고 싶다는 악기로 선택했는데 과거에 비해 교육열이 높아지긴 했으나 개인적 행복보다는 가족이나 사회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세대로[7] 자아실현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음악을 활용하는 목적은 행복과 취미생활, 자신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활동 및 다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노년기의 불안에 대처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33].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는 수강기간 2년 이상, 참여비용 월 5만 원 이하, 동호회를 통해 수강하기를 원하며,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의 여부가 수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강사의 자격요건은 상관없음, 4년제 대학 졸업이상 전공자, 희망 프로그램은 노래 부르기와 가사 나누기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노인 음악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노래 교실이나 합창과 같은 가창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19].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래 가사 나누기를 통해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등 심리·정서적인 교류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활용 현황에서는 선호하는 음악활동을 음악 감상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높았는데, 음악감상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활동이며, 노래 부르기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노래 교실이나 합창처럼 수강이 필요한 음악활동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강좌와 차이점에 관한 문항에서 타인과 함께 즐길 수 있음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노래 부르기와 노래 가사나누기를 선택한 이유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며,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임파워먼트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8].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별에 따른 음악활용의 목적의 차이는 여성의 경우 행복과 취미생활과 치매예방을 위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악 활동이 노화에 따른 육체적 기능 저하를 감소시키고 사회·심리, 그리고 인지적 수행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18]. 이는 여성이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봉사를 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한다는 문항은 남성과 여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베이비붐세대의 여성들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활발한 사회참여를 원하고[10] 중년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봉사대상을 위해 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전과 보람을 느끼기 위함이라는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11].

성별에 따른 음악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희망사항은 남성이 원하는 수강 기간은 3개월, 여성은 2년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이 자녀에게 음악교육을 시켜본 간접 경험과 직접 악기를 배운 음악 경험이 남성에 비해 많아 음악을 배우는 과정이 장기적인 학습과정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 동호회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과 친구가 있는 기관에서 수강하기를 원한다는 결과는 50^{+}세대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비슷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갖거나 스스로 주제를 정해 가르치고 배우는 자치 배움 동아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높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34].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개인특성의 분포도가 고르지 않고, 표본이 적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연령, 직업유무 등을 고려하여 표본수를 늘려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베이비부머 세대와 뉴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 특성을 보다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활용에 대한 양적 조사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음악인식 및 음악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합한 음악프로그램 개발에 폭넓고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 활용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고 이들의 활기

찬 노후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Statistics Office. (2019). http://www.kostat.go.kr

[2] H. K. Gu. (2016). A Study on Proposal to Develop Senior Related Policies : Convergence Approach of Both Age Norm and Hoping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101-110.
DOI : 10.14400/JDC.2016.14.4.101

[3] J. H. Kim. (2015). *The Effects of New Silver Generation Social Participation on Self 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4] Statistics Office. (2013). http://www.kostat.go.kr

[5] H. J. Lee. (2016). Housing Wealth Effects of Home-owning Boomers and Its Generational Dispari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9(2), 105-130.
UCI : G704-001469.2016.29.2.003

[6] H. H. Lee. (2017). Influential Factor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Types of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19-29.
DOI : 10.14400/JDC.2017.15.10.19

[7] Y. M. Jang, Y. L. Hur & M. S. Jung.(2015). A study on the Wellness Change of Life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3), 215-220.
DOI : 10.14400/JDC.2015.13.3.215

[8] E. U. Chang. (2020). New Music Education program as a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New Silver Generatio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2*, 109-132.
DOI : 10.30832/JMES.2020.42.109

[9] M. H. Kim, S. D. Jung & H. J. Park. (2014).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hysical Health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Babyboomers of Korea, US and UK.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987-1005.
UCI : G704-000930.2014.16.2.032

[10] Perlmlutter, M., and Hall, E. (1992). *Adult Development and Ag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1] G. S. Kim, K. S. Hong. (2019). The Effects of Middle Aged Women's Volunteer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0*(2), 987-1002.
DOI : 10.22143/HSS21.10.2.71

[12] E. S. Kim, H. M. Jung. (2006). Effects of the Leisure Activity Program on Physical, Physiological, Psychological Functions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8*(3), 971-987.
UCI : G704-000930.2006.8.3.026

[13] K. A. Shin, M. J. Han. (2013). The Korean Babyboomers as New Seniors: Their Attitudes and Perceptions about Life After Retirement and Their Content Needs for Successful Transition. *Media, Gender & Culture*, 25, 113-144.
UCI : G704-002077.2013..25.001

[1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https://www.kihasa.re.kr

[15] Ryff, C. D., & Singer, B. H. (2000). Interpersonal Flourishing: A Positive Health Agenda for the New Millenniu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1), 30-44.
DOI : 10.1207/S15327957PSPR0401_4

[16] G. Y. Han, Y. S. Kim & Y .S. Oh. (2016). The Effects of Music Activity on Health Ag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3), 363-392.
DOI : 10.15709/hswr.2016.36.3.363

[17] Hallam, S., & Creech, A. (2016). Can Active Music Making Promote Health and Well-being in Older Citizens? Findings of the Music for Life Project. *London Journal of Primary Care, 8*(2), 21-25.
DOI : 10.1080/17571472.2016.1152099

[18] K. H. Jo, H. J. Lee. (2009).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in Young-Old, Old, and Oldest-Ol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1), 21-32.
UCI : G704-000229.2009.39.1.004

[19] Hanser, S. B., & Thompson, L. W. (1994). Effects of a Music Therapy Strategy on Depressed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6), 265-269.

[20] Y. B. N. Lee, S. J. Kim. (2016). The Use of Music for Healthy Elderly : Literature Review.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4), 335-346.
DOI : 10.5392JKCA.2016.16.04.335

[21] B. K. Park. (2018). Approach of Lifelong Education to Improve Elderly Music Education. *Research in Music Pedagogy, 19*(2), 59-91.

[22] J. J. Noh. (2012). *Planning of Musical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Aged Life : Focused on the Musical Program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Master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3] K. H. Kim. (2001). A Study of the Musical Preferences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3*(1), 16-29.

[24] S. J. Han.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actors Elderly Learners on Successful Aging: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Musical Activities and Depression of Learners at a Senior Welfare Center in Seou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4), 185-223.
DOI : 10.30775/KMES.47.4.09

[25] Y. S. Lee. (2016). *A Study on the Conditio and Satisfaction of Silver Choirs in Busan.*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6] C, M, Suh. (2016).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Music Education for New Silver Generation Focused on the Programs at Senior Welfare Centers in the First Half of 2016. *Culture and Convergence 38*(4), 165-188.
UCI : G704-SER000003938.2016.38.4.011

[27] S, B, Lee. (2017). *A Study on the Music Education at School for the Elderly :Focusing on the Seniors School in Busan Metropolitan City.*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8] J. H. Yang, H. Y. Park. (2016). Uses of Music by People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3*(1), 41-60.
DOI : 10.21187/jmhb.2016.13.1.041

[29] North, A. C., Hargreaves, D. J., & Hargreaves, J. J. (2004). Uses of Music in Everyday Life.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2*(1), 41-77.

[30] Maack, C., & Nolan, P. (1999). The Effects of Guided Imagery and Music Therapy on Reported Change in Normal Adult. *Journal of Music Therapy, 36*(1), 39-56.

[31] S. Y. Park, Y. E. Hwng. (2011). A Study on the Music Preference on Individual Factor of General Public.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3*(1), 1-15.
DOI : 10.21330/kjmt.2011.13.1.1

[32] J. H. Kim, H. J. Lee & M. K. Song. (2018). Experiences of Using a Smart Phone in Korean Elders Living in a Medium-sized City : Focused on the Elders Joining in a Smart Phone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9*(2), 111-145.
DOI : 10.22836/kaswpr.2018.9.2.111

[33] Y. S. Kim. H. M. Jung. (2006). Effects of the Leisure Activity Program on Physical, Physiological, Psychological Functions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8*(3), 971-987.
UCI : G704-000930.2006.8.3.026-987

[34] K. A. Nam. (2017). The 50plus generation. Seoul : The Seoul Institute.

전 소 원(So Won Jeon) [정회원]

· 2004년 8월 : 명지대학교 음악과 (음악학사)
· 2013년 8월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음악치료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대학원(음악치료전공 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베이비부머, 음악과 삶의 질, 음악심리치료, 커뮤니티음악
· E-Mail : bestmt66@hanmail.net.

박 혜 영(Hye-Young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과 (음악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음악치료교육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음악정서, 음악중재, 음악재활
· E-Mail : legendphy@kosin.ac.kr